

무주, 드론으로 재난·재해 대응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은 12일 각종 재난·재해 신속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드론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긴급한 재난 재해 발

생 시 드론을 활용해 현장상황을 촬영·전파하고 각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통합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무주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 한 박종삼 무주경찰서장과 함석환

7733부대 4대대장, 문진호 무주119안전센터장, 그리고 박석중 한국드론산업협회장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각종 재난 상황과 테러/국지도발 상황(또는 훈련) 발생 시 드론으로 현장을 신속하게 파악해 인명과 재산 손실을 최소화시키고자 뜻을 모았으며 △운용(사용)자 교육을 통합해서 실시하고 또 △드론을 활용해 취득한 정보는 상호 공유해 나자고 약속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오늘 협약의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주민과 지역 안전"이라며 "관련 기관들이 뜻을 모은 만큼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점검과 대응이 우리 군을 위해 유익한 결실을 맺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재난·재해 상황에 대비해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9일부터 (~10월) 무주군청을 비롯한 무주경찰서와 7733부대 4대대, 무주119안전센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드론 운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은 12일 각종 재난·재해 신속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드론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13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준비 박차

9월 6~8일까지 의암공원... 토마토 탐쌍기·사과 빨리 먹기 등 프로그램 다채

장수군 대표 축제인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서 군 대표 농산물인 Red Food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장수군은 오는 9월 6~8일까지 장수군 의암공원 일대에서 펼쳐지는 제13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서 Red Food를 이용한 토마토 탐쌍기, 사과

빨리 먹기, 오미자 무게 맞추기, 홀라 후프 돌리며 사과 먹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사·토의 달인을 찾는 프로그램인 이번 프로그램은 농산물 판매장 앞 서브무대에서 진행되면 1일 2~3차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또 프로그램 중간에는 장수농·특산물 많이 담긴 유료 이벤트도 진행해 재미를 선

사할 예정이다.

장수군 축제추진위원장은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장수의 대표 농산물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맛보고,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제13회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진안, 8월 정기분 주민세 2억2백만원 부과

진안군은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만3000여건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작년까지는 균등분 과세기준일 8월 1일이었으나 올해부터 주민세(균등분) 과세기준일이 7월 1일로 변경되어,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 1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20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4천8백만원 이상),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포함)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다. 개인 세대주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나 금융앱 등을 사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기자

오늘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최

무주군의회(의장 유승열)가 조례안 처리를 위해 13일 하루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광환 부의장 제안)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윤성훈 행정복지위원장 제안)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해연 산업건설위원장 제안) 등 4건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성인 문해교실'과 관내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시켜 호응을 얻고 있다.

성인 문해교실 자원봉사 연계 눈길

무주군, 방학 맞은 관내 고등학생들 학습 도우미 자처

무주군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성인 문해교실'과 관내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시켜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성인 문해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박경현(무주고 2년) 학생은 "봉사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고 또 할머니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며 "무주고등학교 자원봉사 동아리 '스플릿 스피릿' 소속 친구들이랑 활동을 같이하고 있는데 겨울방학 때도 꼭 다시 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무주군의 '찾아가는 성인 문해교실'에는 현재 3개 마을에서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9월부터는 4곳을 추가로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기자

들도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껴 주민 참여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찾아가는 성인 문해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박경현(무주고 2년) 학생은 "봉사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고 또 할머니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며 "무주고등학교 자원봉사 동아리 '스플릿 스피릿' 소속 친구들이랑 활동을 같이하고 있는데 겨울방학 때도 꼭 다시 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무주군의 '찾아가는 성인 문해교실'에는 현재 3개 마을에서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9월부터는 4곳을 추가로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군, SFTS 예방교육 큰 호응

진안군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환자가 2명 발생(1명 사망)함에 따라 진드기 감염병 예방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최근 5년간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다수 발생한 마을 중심으로 마을회관과 무더위쉼터 등을 찾아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해 왔다.

성수면 달감마을 문영배(74)씨는 "평상시 산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데 SFTS가 이렇게 무섭고 사망률이 높으니 몰랐다"며 "예방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발생한 SFTS환자가 조기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방교육을 받은 이장님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주민이 몸살기기가 있고 구토를 한다는 말을 듣고 증상이 진드기에 감염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예방의 최선·최고는 언제 어디서나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으로 농작업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농작업 후 옷은 반드시 세탁하고 목욕하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농·작업 및 야외활동 후 1~2주 내에 고열과 소화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진안=우태만기자

장수군-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 불법행위 집중 합동 단속

장수군은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무주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산림관리 담당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덕산 계곡 등 관내 주요 계곡 일원에서 ▲불법 야영 시설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등 무단 투기 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시설 설치·운영 행위, ▲자연석·조경수·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군은 단속 전 안내문과 방송을 실시해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여름 폭염 및 열대야 일수가 낮은 장수군의 장점은 모두 산림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공익적 가치가 큰 자산인 산림을 지키고 휴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를 지양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